



頌 智異靈山

麒里李命吉

조국순례의 마음으로

산을 찾는이여. 알피니스트여. 그대들은 어느 산을 오르거나 조국순례(祖國巡禮)의 기도(祈禱)를 담아라. 거기 있는 산(山)에서 뜻을 찾고 그 산자락이나 정상에서 역사(歷史)를 담아서 새겨라.

여기 어머니산, 지리산의 역사며 멋이며 신비를 알기에 내가 존재한 그 이전에도 지리영산은 존재하였고 내가 죽어 없어진 뒤에도 존재할 장엄하고 외경스럽기만 한 생명(生命)이 생성(生成)되는 두류선봉(頭流仙峰) 방장산(方丈山)을 무슨 말로 노래할 수 있겠는가.

한날 필부로서 지리산 산자락에 몇번 안겨 보고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채우노라며 천왕봉(天王峰)에 올라 본 끝에 도리어 하늘 땅 바다사이에서 놀랍게도 스스로 작은 생명임을 깨달은 것외에 아무것도 없는 자로서 지리산에 대한 송찬(頌讚)을 무슨 말로 표현하라.

그러기에 나는 지금 천년 두고 전해지는 어른들의 책과 글을 앞에 두고 우선 합장과 묵념부터 드린다.

지리산력(智異山歷)

지리산은 거룩한 산이요, 장엄한 산이요, 신비의 산이요, 그러하면서 우리들에겐 삶의 터밭이요, 젖줄인 어머니 산이다.

태초에 백두산이 솟아 남으로 흐름에 두루 천리 넓다란 자락을 펼치면서 자리를 잡아 이 강산의 가

슴팍되었고 삼도백성(三道百姓)의 생명줄의 터밭된 방장산(方丈山)의 따뜻한 그 여맥이 다시 바다로 뻗어서 남해 한라산으로 솟아 태평양을 굽어본다.

천신(天神)의 딸 성모마고(聖母摩姑)는 딸 여덟을 낳아 팔도(八道)에 보내어 민족을 다스리게 하였었다니 5천년 민속신앙(民俗信仰)의 기원아니던가.

태고의 옛이야기는 몰라라 하여도 신라의 옛사람들이 국태민안을 빌었던 남악(南嶽)은 천왕봉의 이름으로 오늘을 잇는다.

영산록명(靈山錄名)

천왕봉에 오르면 우리는 간혹 이 산 이름의 뜻을 깨우치게 한다.

지리산은 우리 겨레의 삼신산(三神山)·금강산·한라산의 하나이고, 오악(五嶽)·백두산·묘향산·금강산·삼각산중에 영산중의 영산이다.

그러기에 태초에 천왕산(天王山)으로 부름받아 고대에서 삼한(三韓)에 나라를 지킨 수호산(守護山)이요, 산신(山神)으로 우러러 모셔졌다.

신라에 이르러 지리산으로 이름이 고쳐 불리워지며 박혁거세의 어머니 선도성모(仙桃聖母)가 산신으로 모셔져 국가수호신의 자리를 지키며 봄 가을 치성을 드렸다고 전해온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지리산(智異山)되어 오악(五嶽)·도함산·계룡산·태백산·부악공산)에 제사 드릴제 사직(社稷)을 지켜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빈 거룩한 터전이었다.

제왕운기(帝王韻記：李承休)에 왕건(高麗太祖)의 왕비 위숙(威肅)이 지리산 산신으로 화했다하니 그 내력에서도 지리영산은 여산영봉(女山靈峯)임을 알게 한다.

조선조(朝鮮朝)의 개국 기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불복산(不服山)이 되었다 하거나 그래도 조선5백년을 통하여 지리산은 임금들이 우러러 제(祭)지내고 받들게 하였으니 신라 고려 조선의 3국(三國)이 지리영산의 품자락에서 2천년 나라를 지켜 백성과 함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게 하였던 것이다.

두류산록(頭流山錄：金宗直)에 석가여래의 어머니 마야(摩耶)를 산신령으로 모신 연(緣)으로 하여 산줄기 산기슭에 절이 있고 불경소리 들리며 무궁하다 하였으니 지리영산은 여산(女山)이요, 여신산(女神山)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방장산이라 하여 더욱 그 이름 좋은 것은 중국에서 동해바다 가운데 불로신선(不老神仙)의 불로초(不老草) 무성한 방장(方丈) 봉래(蓬萊) 영주(贏州)의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되어 진시황(秦始皇)이 불로초 캐러 삼천동자(三千童子)를 동해 건너 방장산에 보낸터라. 그로 하여 그 삼천동자의 후예들이 눌러 살아온 이 산기슭 두루 백리 넓다란 자락의 뜻때김이 도리어 경남·전북·전남의 삼도(三道)에 걸친 광활하고 웅대한 포옹(抱擁)의 어머니산 방장산의 넓은 품안의 치마자락의 따뜻한 요람터로서 아늑하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최치원(孤雲 崔致遠)이 선선되어 있음을 행여 민으려 문창대(文昌臺)에 즐겨 앉는지 모를 일이다. 다정하고 거룩하고 두려움이 서린 산이름이 천왕(天王)·지이(智異)·지리(地理)·지리(地利)·두류(頭流)·방장(方丈)·방호(方壺)로 못사람의 입에 오르내릴때 여기 천왕봉을 딛고 서서 하늘과 이야기 나누는 사람만이 산(山)이름의 뜻을 스스로 깨치리라.

이인로(李仁老)의 파한집(破閑集)에 이르기를 「지리산은 백두산에서부터 일어나서 꽃과 같은 봉우리와 꽃받침과 같은 골짜기가 면면히 이어져서 대방군(帶方郡)에 이르러서는 수천리가 서리어지고 뻗었으

니 산을 둘러 있는 것이 십여 고을이요 한달이 넘게 걸어야 주위를 다 볼 수 있도다」라고 하였으니 처음 산행(山行)한 등산객이 미처 지리산의 깊숙하고 넓다란 산줄기속에 펼쳐진 오묘한 맛과 멋을 모르는 이치가 여기에 있는 것일 것이다.

또 이육(李陸)의 유산기(遊山記)에도 이르기를 「지리산은 또 이름을 두류산이라고도 한다. 영남(嶺南)과 호남(湖南)의 두 갈래길이 교차되는데에 웅장하게 걸터앉아 높이와 넓이가 몇백리인지를 알지 못한다. 산을 둘러 목(牧：晉州)이 하나에 부(府：南原)가 하나요, 군(郡)이 둘이요, 현(縣)이 다섯이며 부읍(附邑)이 넷이 있으니 그 동쪽은 진주(晉州)와 단성(丹城)이라 이르고 그 남쪽을 곤양(昆陽)과 하동(河東)·살천(薩川)·적광(赤梁)·화개(花開)·악양(岳陽)이며, 그 서쪽은 남원(南原)·구례(求禮)·광양(光陽)이요, 그 북쪽은 함양(咸陽)과 산청(山淸)이다.

그 위에 봉우리가 있으니 가장 높은 것으로 동쪽은 천왕봉(天王峯)이요, 서쪽은 반야봉(般若峯)이다. 서로의 거리가 백여리나 되고 항상 구름기운이 있어 이를 가리우고 있다.

향적사(香積寺)며, 가섭대(迦葉臺)며, 고사목(枯死木)이며, 세석평야(細石平野)와 철쭉꽃에 더 나아가 가서 쌍계의 세 절과 섬진강(蟾津江)과 화개동천(花開洞天) 등이 불만한 곳이다」 하였다.

지리찬가(智異讚歌)

이침(李詹)이 지리산을 노래하며 읊기를 「내가 들으니 백두산이 남쪽으로 왔는데/바다에 닿아서 뿌리가 반반하네./매우 높은 뿔뿔리가 삼천리에 연했는데/힘한 곳 모두 모여 동국(東國)이 되었구나./산은 굴곡을 이룬 기운이 쌓여 돌연히 일어나니/천궁(天宮)이 천상에 있어 제사를 받는다/천궁에서 하늘에 가기가 한 자도 안되는데/평지처럼 못 산을 잡아 당기고 많은 물을 삼키었네./바람이 부벼대고 구름이 가리어서 나무도 못자라고/웅달진 비탈에는 유월에야 눈덩이가 녹는구나/천태산(天台山) 사만팔천리도/이 산에 비긴다면 하늘과 땅의 차이로다/유

인(幽人)들이 숨어 살아 이 속을 내왕하고/만줄기
 솟은 산의 솔바람 소리를 헤아려서 다 겪으리/문득
 선부(仙府)를 찾아 옥통수를 붙여보니/울리는 그 소
 리가 흡사히 봉황의 울음같구나.」

또 이색(李穡)이 두류산을 읊기를, 「두류산이 가
 장 커서/신선이 표범가죽자리를 깎듯 같네/나무끝에
 는 두발 짐승이 날아가고/구름사이에는 산은 빈몸만
 내었구나/사람들 몇번이나 삼무(三武)에 곤욕 당했
 던가/혹은 고진(孤秦)을 피했다고 말한다네/어떻게
 깊숙히 숨어 살곳 모자란다 하겠는고/어지러운 풍진
 (風塵)속에서 백발이 새롭구나.」

또 성현(成俔) 김종직(金宗直)이 두류록(頭流
 錄)에 붙인 시가 있으니, 「위대롭게 높구나/산이 활
 처럼 구부러져 높고 넓게 뻗어 있음이여/아래로는
 땅을 누르고 위에는 하늘에 닿았네/뿌리가 몇 천
 리나 서리었는지를 나는 모르거니와/매우 높은 피는
 하늘의 동남쪽의 중진(重鎭)이로다./원기(元氣)가
 발설되고 천기(天氣)가 토하여 합쳤도다/구름연기
 암담하여 산중턱을 감추었고/거치른 숨은 계곡에는
 아름다운 나무도 많이 있네/처음으로 산기슭 숲을
 따라 참된 정취를 보았으리/신선이 사는 터의 뛰어난
 경치를 살살이 더듬었네/벼랑에 달려 휘날리는
 폭포는 비같이 쏟아지고/놀랜 우뢰가 내려와서 깊은
 못을 뒤흔드네/산이 깊었으니 물은 더욱 맑았는데/
 깨끗한 그림자는 쪽빛보다 푸르구나/몸소 최고의 정
 상(頂上)에 올라보니/못 뱃뿌리는 쇠못을 꽃은 것
 같고/손으로도 은하수를 만지겠구나/하늘에 가기까
 지 다섯자쯤 되겠는데/바람이 머리에 불어 차갑게
 삼삼하네/동해의 좋은 신목(神木)은 어디쯤에 있다
 던가/아득한 창해(滄海) 만리에 청람(靑嵐)이 떠 있
 구나/고래같은 파도의 어지러운 모습은 신기루같이
 물결치고/빛난 모습은 백성들을 길러주네/외국사람
 이 바다를 건너 잇따라 오니/역대 임금의 덕화(德
 化)가 멀리 미쳤음을 보겠구나/아래로 수십주(數十
 州)의 민물(民物)을 보게 되니/꿈틀거리는 어린 누
 에처럼 엿보게 되는구나/산이 높다는 것으로는 함께
 다투지 못하겠고/산의 중간쯤에서 즐겁고 즐거웁네/
 바람부는 듯한 패다라(敗多羅)의 잎이요/날렵한 절

은 피는 꽃같구나/아름다운 꽃 기이한 나무가 어지
 럽게 퍼져서/봄바람도 탕탕하고 향기도 그윽하구나/
 진기한 새 괴상한 새는 이름도 모르는데/푸른 날개
 로 추는 춤이 삼삼기도 하는구나/푸른 이끼는 길가
 에 가득하니 속세 사람들의 발자취 끊어졌고/깊숙한
 곳의 바위며 깎아지른 듯한 산등성이에 참선하는 절
 이 열렸구나/은은한 곳의 절간을 우러러 보노라면/
 아름다운 금빛채색이 오묘하게 비치는데/종과 북소
 리가 가늘고 맑았어라/이 사이에 마땅히 숨은 군자
 있으려니/팽조와 노자의 아홉마디 지팡이에 부용의
 관(冠) 썼고/쌍성(雙成)시녀의 말고비에 사왕모가
 타고 가네/신선의 구하(九霞)로 비즌 푸른빛 술을
 마시면서/동정(洞庭)의 누른빛 감굴로 안주를 하리
 로다/경지(境支)와 아름다운 풀이 날마다 자라나고/
 푸른 이무기 검은 사슴의 잠이 정말 달콤하겠구나/
 달밤의 숲속은 침침하네 신령스러운 바람소리 울려
 퍼지니/현원(懸輦)의 풍악을 빌려 궁함(宮涵)을 두
 드리네/고운(孤雲 : 崔致遠)이 도를 물어 그 경계에
 올랐으니/꿈과 새들의 현묘한 기들에 견준지 오래였
 네/큰 붓으로 푸른 벽에 써 비추었으니/치런 두고 좋
 은 이야기 남겼구나/무슨 괴로움인가 세상사람들은
 부귀만 생각하고 술에만 빠지는지/그대 돌아가서 그
 아래 누워보라/구름과 숲의 성품이란 달콤한 것이라
 네/내 지금 세속의 그물속에 떨어져서/허덕거리는
 모습이 어찌 부끄러워 할바 아니겠는가/생각컨대 자
 네와 함께 소원대로 보상을 받아/여기에 땅을 가려
 풀덩쿨 암자를 엮고 싶네/마음 뿐이겠구나 적은 녹
 때문에 버리지 못하다니/어렵게 고생하여 파리처럼
 애를 쓰고 동어(銅魚)처럼 탐을 낸들/한 몸에 마음
 과 일이 서로서로 어긋나니/둥근자루를 모난 구멍에
 끼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그대는 천상의 학
 (鶴)이지만 나는 언덕속에 매추리라네/몸을 돌려서
 남쪽을 바라보노라면/근심스러운 마음이 타는 듯 하
 는도다/어찌하면 칙덩굴 부여잡고 새삼 덩굴을 헤치
 고서/상상(上上) 꼭대기에서 긴 휘파람 불어가며/호
 연의 기상으로 천지(天地)와 함께 셋(天地人)으로
 이루겠네」라고 노래하였다.

지리산에는 청학동(靑鶴洞)이 있어 더 어울리는데

유방선(柳方善)은 이렇게 시를 읊고 있다.

「지리산의 활처럼 굽은 모습 바라보니 구름안개 만경이요 가는비 내리듯 흐릿하네/뿌리가 뿌리로 서리어서 형세도 절묘한데/수많은 골짜기를 감히 자웅을 가리지 못하네/층층이 쌓인 메뿌리는 깎아질러 기상도 섞여 어지러운데/성긴 소나무 푸른 잣나무들은 차갑게 우거졌네/시냇물 감돌아서 골짜기를 굴러가는 별다른 지역인데/한 지역의 좋은 경치 신선이 사는 별천지이네/사람이 없어지고 세상이 변하여도 물은 제대로 흐르는데/엷혀진 숲이 하늘 가리어 동서를 모르겠네/지금까지 청학이 홀로 살고 있을까/벼랑에 푸른 한가닥 길 서로 통하겠네/양전(良田) 옥토(沃土)가 펼쳐 있어 책상같이 평평하고/무너진 돌담 헐어진 길이 쭉대밭속에 묻혀 있네/숲이 너무 짙어 닭도 개도 안보이고/해가지고 나서 다만 원숭이 울음뿐이로다/아마도 옛날에는 은자(隱者)가 살았던가/사람은 신선으로 변하고 산은 그대로 비어 있네/신선이 있고 없음을 말한 틈도 없지마는/다만 높은 선비는 티끌세상 벗어난 것을 사랑하네/나도 여기에 집을 짓고 숨어 살아/해마다 요초를 캐며 한평생을 마치리라/천태산(天台山)의 지난 일이 허망하고 괴이한데/무능(戊陵)에 남긴 자취 다시금 몽롱하네/장부(丈夫)의 나가고 물러남을 어찌 구차하게 하겠는가/깨끗한 몸이 어지러운 행동은 진실로 어리석은 것을/내가 지금 짓는 노래의 뜻이 끝없는데/당일(當日)에 시(詩) 남긴 늙은이를 웃고서 목살하겠지」

지리산은 알고 있다.

노고단을 둘러 백모퉁이 돌아 천은사(泉隱寺)에 닿고 보면 그 고요던 지리산에 길뚫어 산을 파괴한 아픈 상처에 한숨 지으리다.

아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지리산을 어머니산으로 알지 못한터여서 스스로 버리고 간 오물찌꺼기며 잡탕스러운 쓰레기는 새로운 지리산의 환경오염의 명물이 된 것을 왜 탓하지 아니하는가 말이다.

이러고도 우리는 산을 찾겠는가. 이러고도 우리는 지리산을 영산(靈山)이라 하겠는가. 이러고도 어찌

지리산을 지킨다고 하겠는가. 그리하여 지금도 지리산을 노래하겠는가 말이다.

지리영산의 산자락에서 벌어진 조국의 역사는 연면(連綿)하게 이어진다.

1862년의 철종 진주민란(晉州民亂)의 맨 앞줄에 지리산의 초군(樵軍)들이 항쟁의 깃발들었고, 1872년의 고종 진주민란에 덕산(德山)은 그 발원지되었으며 1894년의 동학혁명때에는 은자(隱者)도 외국의 침략에 대항하였다 그리하여 1895년 진주의병(義兵)의 봉기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지리산에 숨어 산만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군이 조선침략의 교두보로 삼았던 부산까지 가서 싸운 의로운 항쟁사의 터울이었던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리산은 우리와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있고 현대문명은 차길 뚫고 개발한다는 명목의 관광사업에 지리영산은 몸살을 앓은지 오래여라. 옛 선비는 60일이 걸려서 지리산의 참 모습을 본다고 하였는데 약사빠른 현대인은 증산리 법계사 천왕봉에 한번 오른 일로 지리산을 다녀 왔노라고 기업을 토하는 그 경망함에 진실로 지리산을 사랑하는 사람은 울고 싶어지리다.

사람이 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차가 산과 길을 메우고 기름내음새 퍼지는 속에 다시 산허리 짜르고 뚫어서 무엇하리.

지리산 우리 지리산을 그대로 두게 하라. 자연 그대로 두게 하라. 그리하여 지리산에 오르는 자여 그대도 지리산 품안에 안긴 하나의 생명임을 깨닫게 하라.

맺는 글 삼아

지리산 천왕봉에 오르면 역사와 문화의 고을 진주를 아스라히 바라보게 되고 천왕(天王)과 노고(老姑)할머니 마주보며 100리의 능선에 1500m를 넘는 뒤편기 열두자리 펼쳐 있다. 그리하여 재석 연하 촛대 칠선 덕필 명선 날라리 반야의 큰 산줄기에서 천왕봉을 바라보노라면 다소곳이 솟아있는 중봉과 하봉에 얽힌 저마다의 옛이야기며 전설에서 저절로 외경스러워진다.

산은 산으로 있어 좋지마는 지리산자락에 삶의 터전을 일구고 어울려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젖줄이 되는 포근한 보금자리이다.

백두산은 우리 겨레와 나라의 원줄기 산이라고는 하지만 백의겨레와 만주사람 그리고 중국사람으로 갈라놓으니 안타깝구나. 우리들의 어머니산 지리영봉(智異靈峯)은 가르지 않고 오돔에서 만고(萬古)에 푸르고 의젓하다.

수직으로 내려솟은 산 아래 위로 온대림과 한대림을 이루고 이속에 수많은 나무종류 있고, 또 수많은 동물이 있어 더욱 어울려 좋은 곳이다. 그러나 지리산에 호랑이며, 붓별곰 사라졌다 하니 아쉬워도 세월은 우리에게 영원히 지리영산으로 살아있어 이 산을 노래할 수 있게 하리라.

천왕봉을 기틀하여 100리로 펼쳐진 주능선(主稜線)에 얽히고 섞힌 기쁘고 슬프고 거룩하고 다정한 역사이야기도 좋으려니와 하봉능선에서 풍수지리설을 생각하고 동남부능선에서 황금빛 능선의 가을을 불태우며 남으로 뻗은 왕시루봉능선에서 중생(衆生)에 복덕(福德)을 베푸는 길상천녀(吉祥天女)의 노고단을 가슴에 새기면서 신비한 겨울의 남부능선에서 삼신제(三神祭)를 올리면 지리영봉의 줄기 줄기마다에서 기쁘고 깊은 의미를 얻으리이다. 그리하여 지리산의 서쪽 병풍인 서북부능선을 운봉(雲峰)으로 내리면서 먼발치에서 흥부와 놀부 등의 갖가지 전설을 좇어 담게되리.

우리는 어찌 그 수많은 줄기며 골짜기에 얼킨 이야기를 이 글속에 모두 담을 수 있을까마는 솔거의 그림도 찾아볼 길 없는 단속사(斷俗寺)를 거쳐 높은 선비 조남명(曹南冥)의 덕천서원 둘러보고 과거에 세번 장원(壯元)한 조지서(趙之瑞)의 삼장리(三壯里)에서 학덕(學德)을 우리러 새긴다. 멀리 돌아 왜구를 막으려 쇠뿔을 박은 실상사(實相寺)며, 물속에 잠긴듯한 천은사(泉隱寺)며, 불보(佛寶) 가득한 화엄사(華嚴寺), 그리고 칠불암(七佛庵), 깊은 골짜기 벗어나와 육조달마(六祖達磨)의 깊은 사연 담긴 쌍계사(雙溪寺)를 거쳐 산을 오르내리는이여. 스스로의 인생(人生)을 관조(觀照)해 보라.

아득히 솟아 있는 산정에
구름이 허리에 감도는 산정에
사랑하던 정(情) 미워하던 정
속세에 묻어 놓고 오르세

저 산은 나의 마음
산(山)처럼 넓고 깊은 큰 뜻이
저 산은 우리 고향
메아리 소리되어 부르네

▲ 필자소개

경남 진주 출생. 詩人, 評論家이며 慶尙大學校 教授, 法經大學長 歷任.
現在 晉州文化院長을 맡아 鄉土文化 暢達에 獻身中.
한편 “智異山 同好클럽”을 多年間에 걸쳐 主宰.

